

소상공인 71% “코로나 이후 워라밸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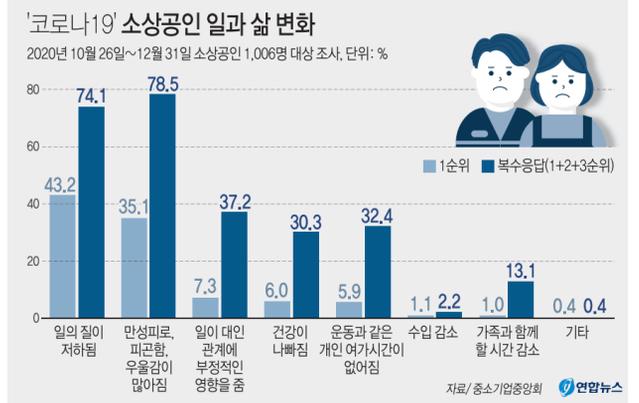
중기중앙회 조사…‘삶 만족도’ 10점 만점에 5.22점 그쳐
월평균 매출 25.9% ↓ …“소비축진 등 지원책 확대 필요”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천6백여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71.3%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

이 늘고’(78.5%), ‘일의 질이 저하됐다’(74.1%), ‘일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37.2%)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의 변화에 대해서는 월 평균 매출액이 3천583만원에서 2천655만원으로 928만원(25.9%) 감소했다.
영업이익 또한 월 727만원에서 468만원으로 259만원(35.6%) 줄었다.
월 평균 사업장 방문자 수는 566.5명에서 366.2명, 종업원 수는 1.3명에서 1.1명,

종업원 임금은 127만원에서 12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전(4.9%)에 비해 코로나 이후(15.4%)에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의 삶 역시 여가 생활, 여가 시간 및 생활비, 가계비 지출, 자기개발 투자 노력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여가 생활을 하는 소상공인은 10.1%(4.7%→37.0%) 감소했으며, 여가 시간(2.3시간→2.2시간)과 월평균 여가 생활비(26만원→16만원), 가계비(282만원→269만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일과 삶의 만족

도와 균형도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2.65점이라고 응답했고, 삶의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 기준 5.22점에 머물렀다.
소상공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불안 등 경기 침체’(9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불안정한 수입으로 경제적 여유 부족’(80.3%), ‘오랜 노동시간’(36.0%) 등을 들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비축진 지원책 확대’(43.8%),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1.9%), ‘사회안전망 확대’(36.1%) 등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개인적 삶에 끼친 영향까지 세심히 살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환준기자



“인턴채용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와 구직 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윤오남 조선훈 취업학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 졸업생을 대상으로 구청 행정인턴 채용에 대한 감사패를 문인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총 60여명의 졸업생을 추천받아 본청 공원녹지과와 행정지원과, 세무과 등 주요부서에 행정사무부조로 채용했다. <광주북구 제공>

작년 로또 일평균 130억원어치 팔렸다

역대 최고...코로나 불황으로 ‘인생 역전’ 노려

지난해 로또(온라인복권)가 하루 평균 130억원어치 팔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권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불리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린 이들이 많아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일평균 판매액은 130억원이었다. 일평균 판매량은 1천297만8

천93권이다.
일평균 판매액과 판매량 모두 2002년 12월 로또 판매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다.
로또 판매액은 2004년 한 계임당 가격이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낮아져 2008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인기가 되살아나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일평균 65억원어치가 팔린 뒤 2017년 104억원으로 처음 1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109억원, 2019년

118억원으로 일평균 판매액은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로또가 가장 많이 팔린 회차는 크리스마스가 있던 943회차(12월 20-26일)였다. 그 주에만 1천1억원어치가 팔렸고, 판매량은 1억8천432건이었다.
지난해 1등에 당첨된 사람은 525명이었고, 이들이 받은 총 당첨금은 1조1천290억원이었다.
2등은 3천428명이고 3등 13만1천430명, 4등 641만6천957명, 5등 1억566만1천724명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판매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다”며 “정확한 확정치는 3월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암뉴스

작년 가계대출 100조 증가 ‘사상 최대’

코로나·영끌·빚투 등 겹쳐...신용대출만 32조 ↑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수요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사상 최대 규모로 불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0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 포함)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작년 말 잔액은 각각 721조9천억원, 266조원으로 1년 사

이 68조3천억원, 32조4천억원씩 늘었다. 연간 증가액이 각각 2015년(70조3천억원) 이후,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기록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한 달 6조6천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11월(13조7천억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 증가액이 11월 7조4천억원에서 12월 4천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6조3천억원)은 11월(6조2천억원)보다 오히려 1천억원 늘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한 달 새 2조8천억원 뛰어 지난해 2월(3

조7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12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1조8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천억원 늘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월(+18조7천억원)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을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기업의 은행 외 대출 잔액은 976조4천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7조4천억원 많았다.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이다.
/연암뉴스

목포상의 ‘수산·식품 창업’ 지원사업 실시

18·60세 이하 지역민 신청 가능

목포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목포시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수산·식품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등급(A) 평가를 받아 향후 3년간 심사 없이 추진한다.
‘수산·식품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목포권 창업예정 및 창업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지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목포상의는 총 20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진

직장인 소망 1위 “건강관리”

행한 후, 창업대상자 중 심사를 통해 15명에게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창업에 필요한 세무·법률·회계·경영과 수산·식품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교재비 등이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목포상의의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산·식품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기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지역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올해 직장인들은 신년 소망으로 건강과 재테크 성공을 많이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에 따르면 지난 6-8일 직장인 82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건강관리’를 꼽은 응답자가 19.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재테크 성공(17.1%), 이직·창업(15.2%), 자격증 취득(12.8%), 외국어 습득(12.2%), 연봉 인상·승진(6.7%) 등의 순이었다.
휴넷은 “지난해 1·2위는 외국어 습득, 자격증 취득이었는데 올해는 재테크 성공, 이직·창업 등 경제적인 항목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암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